

지나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요즘 핫하다는 게임 “브롤 스타즈”. 초등학교 아 들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심심할 때 하는 것을 목 격한 이후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하는 궁금 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굳이 그럴듯한 명목을 갖 다 붙이지면 아들과 친구같은 쿨한 엄마가 되기 위한 소통 수단으로, 솔직히는 순전히 호기심 때 문에 나도 이 게임에 입문하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 렷을 때부터 보드게임은 물론 우리 시대에 유행했 던 각종 게임에도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관 심이 아예 없었다. 어떤 게임들은 주위에서 하도 재미있다고 해서 한두 번 시도는 해봤지만 이상하 게 별로 재미가 없었고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 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주말,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아이들 곁에서 브롤 스타즈라는 게임을 함께 해보 았다. 조금씩 해보니 왜 재미있는지, 왜 남녀노소 정신 못차리고 빠져있는지 알 것만 같았다. 초딩은 물론이며 게임을 전혀 모르는 나같은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모바일을 위한 게임이 었다. 일단 이런 모바일 게임을 처음 해보는 나도 어려움 없이 바로 친숙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에 가장 큰 매력이다.

브롤 스타즈는 몇 가지 미니 게임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썸그랩이 라고해서 3대3으로 먼저 썸 10개를 모으고 15초 동안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다. 상대방도 10개를 모 았다면 더 많이 모은 팀이 이기게 되는데 매우 심

플하면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게임 상세 설명, 캐릭터의 배경과 필사기, 게임을 하며 모으게 되는 트로피, 동전과 보석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그냥 대단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해두자.

내가 이 게임의 생리를 이해하고 재미를 몸소 체 험하고 난 후 우리집에도 변화가 생겼다. 첫째, 더 이상 아들을 게임 중독자 취급하지 않는다. 좋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임이다. 하고싶어 죽겠 는 것이 정상이다. 나도 이 게임을 하느라 말 시키 는 아이를 되돌려 보내거나 설거지를 미뤄 놓거나 세탁물을 세탁기에 방치한 적이 있었으니 아이들 은 오죽하랴. 둘째, 아이에게 게임을 “당장 멈추라!” 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끝내게 해주는 것이 매너이다. 팀 플레이 게임에서 누군가 판을 깨고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2분 내로 끝나게 되어 있으니 게임을 끝낼 수 있 게 기다려줘야 한다.

내가 직접 게임을 해보니 그동안 중간 중간 찾지 못해 답답했던 퍼즐 조각들이 눈에 쑥쑥 들어왔 다. 그동안 왜 아들이 용돈을 아껴 현질을 하게 되 었는지, 왜 밤에 몰래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겨두 었는지, 남편은 왜 게임 중에 말을 시키면 그렇게 성의없게 대답하여 내 속을 뒤집어 놓았는지……

어찌되었든 나의 게임 입문 이후 아이들에게 약 간의 자유를 허용해주었고 아직까지는 오히려 나 름대로 우리가 만든 규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규칙 세 가지는 1. 게임은 주말에만(성인

예외), 2. 현질 절대 금지(현질이란 현금을 주고 아 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사는 행위), 3. 할 일 먼저 끝내고 게임하기인데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꽤 철 저히 지켜지고 있다. 게임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나를 저희들도 맡은바 열심히 임해주고 있어서 다 행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도 아이들과 공통 화제 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서 뭔가 더 활력이 생기 기도 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으니, 한두달 시간날 때 마다 게임에 열중했더니 왼쪽 엄지 손가락 주변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무 무리했나 싶어서 하루 이를 쉬고나면 또 멀쩡해지고 다시 시 작하면 또 조금씩 빠근해진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 는 참 이상하다. 내가 화장실 바닥 청소라도 하다가 엄지 손가락을 삐끗했더라면 뭔가 굉장히 억울 하고 우울했을 텐데 게임하면서 생기는 엄지 손가 락 통증에는 큰 불만이 없으니 말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게임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브롤 스타즈는 우리 가족들의 연결 고리 가 되어줄 것 같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아이비 펜싱클럽

IVY FENCING CLUB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Art of Fencing, Art of Life
 유럽에서 몸으로 하는 체스라 불리우는 펜싱, 이제 플러튼에서 시작합니다.
 한인에게 경쟁력있는 운동 펜싱으로 인내심, 체력, 신속한 판단력을 기르고
 아이비 대학진학 가능성을 높이세요!

Grand Opening

전 국가대표 선수가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 경기고, 한국체육대학 졸업
- 청소년 국가대표
- 90년부터 10년간 성인 국가대표
-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다수 수상
- 2000년부터 5년간 서울 체육 고등학교 코치 역임
- 2014년부터 4년간 미국 버지니아 Penta Olympic Fencing Club 코치

미국 현지 아이비리그 대학에선 펜싱을 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펜싱은 더욱 현실적인 스펙이 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 수능시험(SAT) 다음으로 체육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들에는 유서깊은 펜싱팀이 있습니다. 펜싱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입시에 가산점을 줍니다. 펜싱은 빠르고 격렬하면서도 곧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집중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유럽 귀족들의 스포츠였던 만큼 상대에 대한 예의를 중시해 인성교육에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하체를 움직여야 하는 펜싱은 다리의 군살을 빼고 늘씬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며 순발력과 민첩성, 유연성, 균형감을 발달시키는 운동인 동시에 순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지적게임' 이기도 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인 펜싱으로 균형잡힌 몸매를 유지하세요.

TEL: 714-449-0882 • 1807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5
 www.ivyfencingclub.com • ivyfencingclub@gmail.com